

### 3/21(월) 삼상 13-15장 보좌 없는 왕

엘리는 <의자 王位>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(4:13,18).

사사이자 제사장 엘리의 죽음으로 <의자 王位>가 공석입니다.

누가 이 <통치권>을 이어받게 될까요?

사무엘, 사울 이야기에는 <의자 王位>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

한참 후 다윗 이야기에서 비로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(삼하3:10, 7:13,16, 14:9).

사무엘은 통치자가 아니라 준비자 즉, 선지자로서 킹메이커 역할을 합니다.

사울은 왕이었음에도 <의자:보좌 王位>에 오르지 못합니다.

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.

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,

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도리어 땅을 빼앗깁니다.

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만(10:17-24,11:12-15),

사울 역시 <불순종>으로 결국 <의자:보좌 王位>를 얻지 못합니다.

<왕 王位> 역할을 할 뿐, 보좌 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.

사울 왕정은 겸손과 순종, 환호 속에 출발했지만(9:2,21, 10:9,22, 11:6,11,15),

<불순종>을 반복하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(13-15장, 15:11,26,35).

군사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.

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(13:9, 15:19,26).

그는 백성들의 소리와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(15:24,30).

“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

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

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(쉐마, 15:1). ”

하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<청종>하는 자를 쓰십니다.

<하나님의 통치>를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<통치권>을 주십니다.

나는 <하나님께도> 인정받고 있습니까?

①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과 직위 그대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있습니까?

② 이미 허락하신 <자리>를 헛된 열심과 불순종으로 박차고 있지 않습니까?